



제주포럼 개막 제17회 제주포럼이 14일 개막한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시도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두만강 국제연합도시 건설 예시를 통해'라는 주제로 첫 세션이 진행됐다. 강희만기자

드론택시 2025년부터 시범 서비스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드림팀 어제 업무협약
제주공항-해안가·부속섬 잇는 노선 중심 운항

드론택시가 2025년부터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제주 해안가와 주요 관광지, 마라도, 가파도, 우도 등 부속섬을 잇는 시범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항공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으로 구성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J-UAM)' 드림팀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런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제주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이 되는 제주형 UAM 서비스 모델을 구현한다. 오는 2025년부터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제주 해안가와 주요 관광지, 마라도, 가파도, 우도 등 부속섬을 잇는 시범운행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해안가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을 진행한 뒤 중장기적으로 한라산 백록담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와 함께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물류배송 서비스와 응급환자 긴급 운송까지 다양한 공공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UAM 운용 부지 및 인프라 제공, 인허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지상 및 하늘 모빌리티 연계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한국항공공사는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수직 이착륙장(Vertiport)을 구축하고, 항행안전관리시설 인프라 등을 활용해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과 제조·판매·운영·유지보수(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와 항행·관제 솔루션 개발 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간 협력체계 기반 UAM 서비스 제공과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운영, UAM용 통신 시스템 등을 담당한다.

국회 행안위 제주국감 확정... 정무위도 검토

내달 21일 제주자치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0월 21일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제주 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행안위의 제주 현장 국감이 확정되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출범 두 달 만에 국회 행안위 국감 무대에 서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되기 전 국회에서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오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의 도정 전반에 대한 송곳검증을 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도 최근 제주도측과 제주 국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436
잠정집계 14일 누계 32만9826
<17시 기준>

“다른 지방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검토”

데스크 진단 제주도 탐라풍력 문제 해결 방안은

지역주민 지분 사업 참여 이익 배당받는 방식
민간 주도시 이익 독점... 마을발전지원금 생색
“제주에너지공사에 지구 지정 권한을 위임해야”

제주자치도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허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구 지정 변경안 허가 여부를 떠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가진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추진 성과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에 대한 풍력자원 공유화·도민이익 극대화 방안을 찾아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9월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내 전력수요 전제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를 2022년 12월말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개발후보지 선정

및 사회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참여사업자 선정, 풍력발전 공동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탐라해상풍력(30MW)과 한림해상풍력(100 MW) 및 대정해상풍력(168MW)은 제외했다. 1단계로 2022년까지 702MW에 대한 해상풍력개발은 '공공주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담토록 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의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육해상 풍력 발전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탐라해상 풍력발전 확장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구지정 변경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당초 법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72MW규모의 신규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민간주도로 넘어가게 됐다. 지구지정 변경 허용시 앞으로 기존 다른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에게 사업 규모 확장의 문을 열어 주게 된다.

▶공공주도 풍력개발 부진=제주도가 탐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변경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주도 풍력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시행예정자' 재지정을 놓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아 2022년까지 702MW에 대한 독점적 해상풍력개발권을 가지게 됐다. 2015년 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육상 1개와 해상 3개 후보지를 확정했으나 이중 표선은 사업이 중단됐고 월경·행원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평대만 투자자 공모를 앞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지속, 주민민원과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해야 할 해상풍력 잔여용량 300여MW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풍력을 도민의 공공적인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간이 공공의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정립해 낸다면 사업추진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지금 제주에너지공사는 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대정이나 표선·세화나 행원·월경 해상풍력이 다 중단된 상태이다. 때문에 올해말 사업시행자 지위가 만료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주도니까 사업에 지분을 넣어야 하고 발전기종 선택에 따른 경제성 분석, 계통까지 연결을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가 하는 일을 에너지공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 부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연동 365 일의원

진료 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6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우편집중국
신제주

롯데마트
옴상호저축은행
대림APT

그랜드
사거리

연동365빌딩

신제주
로터리

연북로
KCTV
부림랜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